

“시민 건강 지켜라”...순천시, 맞춤형 돌봄체계 가동

취약계층 전담 간호사 배치
무더위 쉼터·순회 진료 운영
식중독 사고 예방 대책 등도

순천시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계절성 감염병 등 복합적인 건강위협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안전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건강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식품위생 관리, 아동·청소년 건강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건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독거노인, 재가암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약 5천600가구를 대상으로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매안심센터는 차매 어르신 400가구에 영양 식과 냉감이불로 구성된 건강꾸러미를 전달하

고 있으며, 일부 열악한 가정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의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호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관내 보건지소 9곳과 보건진료소 22곳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운영, 고령층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계절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침수 지역과 위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강화하고, 어패류 취급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수계 감사를 통해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 집단생활시설에서 위장관 증상이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 체계를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지난달 순천시 별량보건지소 직원들이 신촌경로당에 방문해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순천시 제공>

등 기초 위생수칙 준수를 마을방송,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다.

식중독 사고 예방과 진절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식중독 예방교육도 시행 중이다.

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113곳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교육을 통해 위생습관 형

성 및 식생활 지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중독 고위험 업소 150곳의 집중 점검과 함께 예방 진단 컨설팅도 병행해 업소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위한 여름철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꿈나무 건강키움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성장검사 ▲생활습관 교육 ▲건강상담 ▲필수 예방접종 확인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아동돌봄 놀이교실’을 운영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고흥군, 군수실 문턱 낮춘 ‘고소한 만남’ 눈길

7급 이하 10명 내외 구성

애로사항·제도 개선 등 청취

고흥군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고민은 나누고 소통은 늘리는 ‘고소한 만남’을 운영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소한 만남’은 7급 이하 1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군수와 점심을 함께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근무 중 겪는 애로사항, 제도 개선 건의 등 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복무제도와 조직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첫 만남은 지난 4일 재난안전과·종합민원실 등 격무부서의 저연차 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12일 진행된 두 번째 만남은 민생회복소 비쿠폰 배부와 폭염 및 집중호우 비상근무로 고생하는 읍·면사무소 직원들과 군수 집무실에서 ‘도시락 데이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진>



공영민 군수와 참석 직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며 군수에게 궁금한 점과 업무 고민, 건의사항을 격의 없이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 직원은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지만 편안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었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영민 군수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간다”며 “형식적인 소통보다 현장에서 직

접 들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업무환경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고소한 만남’을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참여 대상을 6급 팀장급 중간 관리자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소통이 일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בח천기자

담양군복지재단, 호우 피해 주민 주거환경·가전 지원

담양군복지재단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해 주거환경개선과 가전제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최근 긴급 배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재산·소득 기준을 초과한 일부 군민에게

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원에는 각계각층에서 모인 후원금 2천만원이 사용된다. 재단은 담양군과 협력해 피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호 담양군복지재단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속도’

운영 활성화 등 7대 중점사업 논의

장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갖고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에 속도를 낸다.

장성군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자문기구다.

협의회는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따

라 의장인 김한중 장성군수와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원, 차계옥 전남도교육청 장성도서관 관장, 임준상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공무원,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올해 평생교육협의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2024~2025년 상반기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하반기 운영 방향 및 계획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도 진행됐다.

이어서 올해 장성군 평생교육의 7대 중점사업인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활성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관·행복학습센터 지정 ▲성인문해교육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조성할 방침”이라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명태 기자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특별행사 운영

오는 23일 공연·체험 등 다채

광양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백운산 자연휴양림 제1야영장 일원에서 특별행사 ‘하하호호 휴양림에서 만나는 여름 문화소풍’을 개최한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행사는 자연 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예술 중심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식전공연으로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를 열고 ▲할린콘서트(하모니카·통기타·오카리나 연주, 마술·버블쇼 등) ▲가족과 함께

하는 ‘토코쇼’ ▲광양 출신 성악가 바리톤 이광일의 특별 무대가 이어진다.

또한 대나무 물총 만들기, 모기퇴치제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해 공연과 체험 행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심현우 광양시 휴양림과장은 “이번 행사가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다시 찾고 싶은 산림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보성군, 교육발전 포럼 준비 본격화

맞춤형 교육정책·협력방안 모색

보성군은 13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핵심 특강인 ‘보성사회, 보성사람들의 길 찾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특강은 오는 9월 열리는 ‘제4회 보성교육발전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련됐으며, 새길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주관으로, 곡성미래교육재단 허성균 상임이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제안된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도출됐다.

군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교육 주체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교육 실행 프로그램, 간담회, 최종 포럼 본행사 등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정책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보성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교육발전 포럼’은 지역 맞춤형 교육 비전 수립과 교육 주체 간 소통 창구 마련을 목표로 현장 중심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31일에는 ‘제4회 보성교육발전 포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전회의가 열려 준비위원회와 교육 주체별 그룹이 구성됐으며, 포럼의 공통 주제와 전체 구성 방향을 선정하는 협의를 거친 바 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곡성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설명회

곡성군 13일 “내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에서 전날 열린 설명회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한 38개 지구의 경관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읍·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 특색이 담긴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와 농촌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지구별로 경관작물 2

ha, 준경관작물 10ha 이상 집단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곡성군은 현재 지구별로 동계 경관작물인 헤어리베치와 자운영을 재배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2028년 경관보전직불제의 시기별 추진 절차와 유의사항이 안내됐다. 또한 지난 수요조사에 참여한 38개 지구 신청농지의 집단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곡성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구별 검토를 진행했다.

군은 이달 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면적이 확정되면, 농업인과 농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집단화 기준을 만족하는 지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곡성=김명태 기자